

정읍시, 문화재 보수·정비 나선다

31건 대상 42억원 투입 관광객 관람 환경 개선

정읍시가 지역 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수와 정비에 나선다.

정읍시는 지역 주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고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올해 42억3700만원을 투입, 문화재 31건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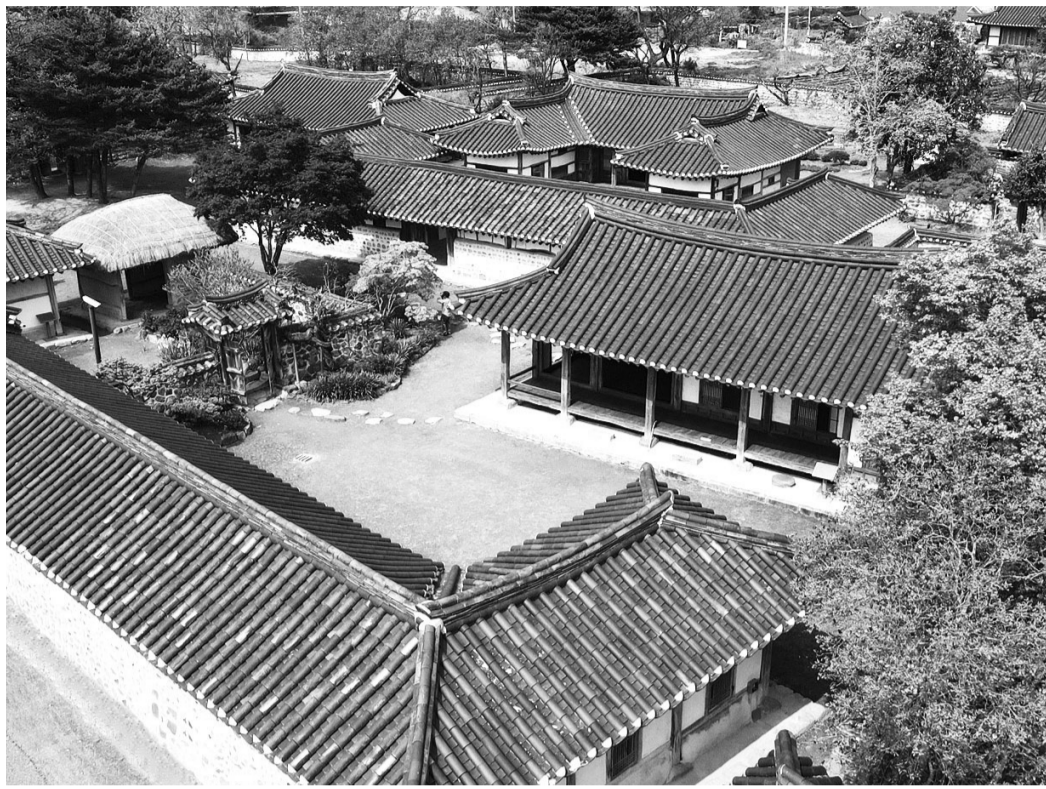
‘고사부리성’ 등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에 18억5300만원, ‘고부향교 대성전’ 등 도지정 문화재 12개소에 13억6800만원 등을 투입, 문화재 원형 유지와 주변 환경 등을 정비한다.

또 ‘읍원정’ 등 향토유산 6개소에 8억1500만원, ‘정읍향교 대성전’ 등 이월면 정비사업 대상 3개소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는 나용균 생가 사당,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지붕기둥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고사부리성, 상학마을 옛 담장, 김명관 고택 등 13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외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들은 오는 6월 예산을 집행해 7월~11월 사이 착공할 예정이다.

정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8건과 도지정문화재 51건, 국가등록문화재 10건, 도등록문화재 1건, 전



정읍시의 문화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김명관 고택' 전경.

통사찰 10건, 문화재자료 19건, 향토문화유산 22건 등 모두 131건의 지정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꼼꼼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임대 농기계 31대 현장 경매

다음달 9일 농기계 임대사업소...농업인 우선 구매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불용 임대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 경매를 통한 매각행사를 진행한다.

경매는 6월9일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된다. 매각되는 임대 농기계는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 등 수리비용이 과다해 불용물품으로 결정된 농업용배일러 등 13종 31대가 대상이다.

물건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에게 1세대 1대로 제한해 경매를 진행한다. 이는 농업인 외에 특정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우려해 마련한 조치다.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고시·공고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창군 농업인으로 입찰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리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1세대 1대의 농기계만 가능하고, 다수 입찰 참여시 최고가격을 기재한 사람을 낙찰자로 원칙으로 한다. 1기종 2인 이상 동일한 최고가격을 제시한 경우 1차 상호협의, 2차 제비뽑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용 물품으로 결정된 임대 농기계를 실질적인 수요자인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시민 제안 우수 정책 11건 선정



김형우(왼쪽 다섯번째) 정읍시 부시장과 우수정책을 제안해 입선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책제안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자 추진한 '상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432건이 접수됐고 이중 시민 5건, 공무원 6건 등 총 11건의 우수정책 제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주제 우수상은 ▲청년참여포인트제도 운영(김인경, 공무원)이 뽑혔고, 일반주제 우수상에는 ▲지역경제와 정읍관광 활성화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방안(김경철)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청년참여포인트제도'는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지역경제와 정읍관광 활성화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방안' 제안은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 상권을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이 밖에도 일반주제 시민 부문 수상작으로 ▲정촌가요특구 놀이터 시설을 전통 놀이시설로 변경(문선아) ▲구시장 교차로 LED배치 및 음성안내 신호등 설치(박동혁) ▲내장상동 소공원 및 금봉천 옛 도랑 복원 생태하천 조성(하승찬) ▲도시 곳곳 단풍 이미지 조형물 조성(김선희) 등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부서 직원 현황판 전자화 도입(김태환) ▲스마트 명패 사용으로 효율적인 회의·행사 운영(박태균) ▲정읍시립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박수빈) ▲정읍시 행정전화 스마트 발신 알림 서비스 시행(조현근) ▲공간 정보시스템 검색시 통·반 표시 및 시 홈페이지 주소검색 기능 추가(정기룡) 등이 뽑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하수처리 재이용수 농번기 농업용수로 공급

고창군이 농번기를 대비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의 하루 시설용량은 1만6000t,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은 하루 1만1000t이다.

군은 재이용수를 아산면과 고수면 일대 상습 한해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고창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재이용수 총 107만3000t을 공급해 재이용률 26.2%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5.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업입주, 고창 하수관로 3단계, 석정온천관광지 활성화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154억원을 투입, 시설용량을 하루 2만1000t까지 증설할 예정이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홍보대사 된 '미스 춘향 6인'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춘향 진·선·마·정·숙·현으로 뽑힌 6명의 수상자들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최경식(왼쪽 다섯번째)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6명의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대한민국 대표 전통미인 '미스 춘향'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남원시는 '제93회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날 열린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진·선·마·정·숙·현으로 뽑힌 6명의 춘향들이 남원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6명의 춘향들은 앞으로 3년간 남원시 공식 홍보모델로서 국내외 관광·축제와 대규모 행사 등에 참가해 남원시와 춘향문화를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춘향 진 김주희(22·전주)씨를 비롯해 ▲선(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신아림(22·용인) ▲미(美) 경기대 연기학과 신서희(21·서울) ▲정(淸)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원채영(23·서울)

▲숙(淑)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홍다솜(23·서울) ▲현(峴) 가천대 연기예술학과(졸업) 이가연(24·광명)씨가 차지했다.

춘향 진에 선발된 목원대 김주희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미인을 상징하는 춘향 진에 선발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악의 도시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졌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 대표 민족문화인 춘향의 열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남원시 얼굴이자 문화관광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실내수영장, 내일 공식 개장

남원실내수영장이 6월1일 공식 개장한다. 남원실내수영장은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2965.7㎡ 규모로 건립됐으며, 길이 25m짜리 6개 레인이 조성됐다.

또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탁구장(탁구대 14개), 헬스장, 북카페, GX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개장을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시설 안내 및 회

원접수를 시작했고, 6월7일 개장식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키오스크 발권기와 전자키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개장식은 도농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커피타임, 시설 점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반영구적 사용가능, 관리의 간소화, 낮은 관리비, 자연과의 동화,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